

전주 풍남문광장 복합문화공간 정착

시민·관광객 대상 야외 공연·전시·행사 '풍성'

전주를 대표하는 풍남문 광장이 전주시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풍남문광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공연, 전시, 각종 행사 등을 보고 듣고 즐기며 동참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정착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과 기억의 나무가 있는 풍남문 광장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담아내는 '기억의 광장'이자 문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풍남문 광장은 일본군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 실현과 인권존중의 열원을 담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이 지키고 있다. 또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려는 뜻을 담은 기억

의 나무(신수유나무)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 풍남문 광장에서는 소중한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3·1 운동과 3·13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1919년 3월 13일 당시 만세운동을 재현한 이날 행사는 신학교에서부터 풍남문광장까지 시가 행진을 벌이며 나라 잃은 설움과 일제의 폭압 속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조상들의 정신을 되살려, 역사의식과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금 되살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2천500여명의 여성들이 풍남문 광장에 모여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차

별과 소의 없는 성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가 모아지는 행사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풍남문 광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풍남문 광장은 전주시 문화특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중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풍남문의 정통가옥 구조에 3차원의 입체적 건축미를 살려 콘텐츠를 제작, 건축물에 맵핑해 입체적 효과를 살린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풍남문 빛의 옷을 입다"를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는 오는 7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밤 9시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로 풍남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청소년문화제를 비롯해 청소년 꿈드림 축제, 우수창업기업제품 전시, 한글날 기념행사,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중한 역사와 시민들의 기억을 담아내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상징으로 자리 잡은 풍남문 광장이 전주를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과 향수에 기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남문 광장을 개방된 역사·문화공간으로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고 한옥마을, 남부시장, 구도심을 잇는 중추적 공간으로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남문 광장 사용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063-281-5322)에 신청하면 전주시민 누구나 풍남문 광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美워싱턴카운티-JG그룹과 인적교류 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CTCF2, 센터장 채수완)는 지난 15일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군수 그렉 머레이), JG Business Link Intemairal(이하 JG B.L.I, 회장 이근선)와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강명재 병원장, 채수완 센터장, 워싱턴카운티 그렉 머레이 군수, JG그룹 이근선 회장, 워싱턴카운티 대표 등이 참석해 국제협력과 교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병원 CTCF2, 워싱턴카운티 및 JG B.L.I는 △워싱턴카운티 개발사업 프로젝트 협력 추진 △미국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향토건강식품의 연구개발 연계 협조 및 인적교류 △향토건강식품의 미국 시장 마케팅 지원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 대통령 전용별장(캠프데이비드)이 있는 워싱턴DC 근교에 위치한 워싱턴카운티는 최근 300에이커의 숲과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포트 리치를 재개발 친환경 헬스타운 등 종합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국정화저지전북네트워크가 1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과교과서 역사왜곡 중단하라”

전북 사회단체, 폐지 촉구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국정화저지전북네트워크는 1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사회과교과

서 역사왜곡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전국민적 반대에 집필 기준과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복면 집필’ 중에 있다”면서 “이번 초등 역사교과서를 보면 ‘위안부’ 서술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렸고 이승만 건국론을 반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까지 지워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을 통한 ‘유신시대의 회귀’나 ‘다름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학생들도 힘을 모아 교육현장에 국정교과서가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차량털이 10대 2명 검거

익산경찰서는 16일 새벽시간 차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철도)로 정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2시15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식당 앞에 주차된 김모(47)씨의 차량에서 현금 2만5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투자금 가로챈 60대 女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양시호 판사)는 16일 지인을 속여 투자금과 갓돈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6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10일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농조합에 투자하면 1주일 당 14%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물품 1100만원을 받아 행간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같은 해 8월13일 지인 B씨가 조직한 계에 가입해 갓돈 3000만원을 받아 행간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합의해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감형에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종우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장애인 복지정책 점검

한옥마을 일대 돌며 현장체험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동생활가정 거주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농어업 시각장애인 등 전주시 장애인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16일 휠체어에 몸을 싣고 전주시청부터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장애인 체험에 나섰다. 또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장애인복지 실무자들의 이

야기를 경청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체험은 김 시장이 지역 장애인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몸으로 부딪쳐 체감하고, 이를 통해 느낀 불편에 대한 개선사항을 향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전주시청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해 한옥마을로 이동해 장애인들의 평소 생활을 체험하고, 장애인의 보행권과 이동권,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직접 수행했다. /김영재 기자

도, 남원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위법사항 40건 적발 행정처분

신분상 처분은 5건

지난 2014년 남원시의 비례봉 눈꽃축제가 예산효율화 사례발표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남원시가 '차량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청이 지난 2년(2013년 10월부터 2015년 10월)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한 도 감사에서 행정상 처분 40건, 신분상 처분 5건, 재정상 처분 9억7,7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인사·조직관리의 적정성 ▲재정운용 적정성 ▲주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총 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 2건, 주의 18건, 권고 1건 등의 처분과 훈계 5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창의적 직무 수행을 위해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27조에 의하면 잦은 전보에 의한 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보·전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급 등 12명에 대해 5년에서 15년 장기근무를 하고 6급 등 26명에 대해 잦은 전보를 실시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힐링캠프 교육(4,500만원)과 저수지 비상대처(EAP)수립(9,400만원)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스피치·응변·면접·리더쉽·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당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설팅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당' '나를 세운다,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